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주임 신부 정재준 사도요한
보좌 신부 정혁 요셉 (청년부)
이춘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경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교수녀 정은자 한나 (원장)
이민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정정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회장 황태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새 사제 첫 미사

7월 30일(일) 교중미사 10시 30분
살레시오회 : 김형석 도미니코사비오 신부

보스코 자습실 방학 특강

- 대 상 : 초·중학생 (관내 비신자 포함)
- 과 목 : 수학, 영어, 영어회화, 과학, 체육
- 일 시 : 7월 24일부터 월~금, 오후 4시
- 장 소 : 교육관
- 문 의 : 02-6738-2201 (평일:13:00~19:00)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 8월 4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8월 5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성모성심회	8월 5일(토), 17:30	강 당
위령봉사회	8월 6일(일), 11:40	강 당
M.E.	8월 쉽니다.	
제대헌화회	8월 쉽니다.	
임원 모임	8월 쉽니다.	

◎ 다음 주일(8/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8월 쉽니다.	청 소	17구역
------	---------	-----	------

◎ 청소년 분과

- 중고등부 여름 신앙 학교
 - 일 시 : 8월 4일 ~ 6일
 - 장 소 : 춘천댐 아름다운 세상
 - 대 상 : 중·고등부 학생(초6~고3)
 - 문 의 : 김덕리 라파엘 010-4463-4260
- 청년 여름 캠프
 - 일 시 : 8월 26일(토) ~ 27일(일) 1박 2일
 - 장 소 : 워터플레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비 용 : 5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 신연미
 - 문 의 : 신연미 가브리엘라 010-7599-323

◎ 우리들의 정성(7월 19일 ~ 7월 25일)

교무금	5,899,000원		
주일헌금	4,876,100원		
김천길10만원	손수옥 5만원	정승우10만원	
정애자 5만원	이영순10만원	김종길10만원	
감사헌금	홍○○ 5만원	송병년10만원	임우빈 5만원
조성옥 5만원	김○○20만원	김정애10만원	
정영자 1만원			

◎ 알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8월 9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8월 병자영성체는 쉽니다.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7/30	구민서	오성환	하재민	김영균	최상림	김덕영	정홍자
8/6	황원선	심재순	김영균	김진수	최상림	최웅조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30	오광운	박형순	이운영	이화봉	장인홍
8/6	이운영	박승환	장인홍	최석준	이화봉

화답송 
주님 제 - 가 당 신가 르 침 - 을 사 랑 하 나 이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잔미 받으소서”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8.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는 특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를 해친 것을 회개할 필요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생태적 피해를 일으키면” 우리가 “크든 작든 피조물의 변형과 파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입니다. 총대주교께서는 강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이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피조물에게 저지른 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삼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9. 또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는 환경 문제의 윤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증상만을 다루게 됩니다. 총대주교께서는 우리가 소비 대신 희생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나눔의 정신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금욕주의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사랑의 방법, 점차로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포와 욕망과 충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인 천교의 성사로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 창조의 흠 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합니다.”